

“스승 뜻 이어 클래식 인재 양성”

고 김태현 교수 제자·후배 음악인 주축 ‘선율’
31일 금호아트홀서 ‘제1회 김태현 콩쿨’ 개최
피아니스트·지휘자 활동...연주자 발굴·지원

‘스승의 클래식 사랑 잇는 피아노 콩쿠르.’ 평생 클래식 음악 저변화와 인재 발굴을 위해 힘썼던 스승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후, 제자와 후배 음악인들이 그의 뜻을 이어받아 스승의 이름을 딴 콩쿠르를 개최, 눈길을 끈다.

피아니스트로, 지휘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고(故) 김태현 광주대 음악학과 교수. 광주 지역 클래식 발전을 위해 노력하던 그는 지난 2019년 1월 급성 뇌출혈로 인해 61세의 나이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광주대에서 첼리스트 박효은, 피아니스트 선수정, 임리과 한국교원대 교수 등 제자들을 배출하며 클래식 교육에 힘써왔던 그는 지난 2010년 클래식전문예술단체 (사)선율을 창단, 사람들이 클래식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꾸준히 활동을 이어온 (사)선율은 올해 ‘제1회 김태현 콩쿨’을 시작한다.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숭고한 뜻을 이어 지역의 예술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광주 현대병원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사)선율은 광주 출신의 우수 청년 연주자 발굴·지원 등에 특히 힘을 쏟았다. ‘청년 꿈을 연주하다’ 등을 통해 젊은 연주자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제공해왔다.

청소년 및 청년 연주자들이 갖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는 자리인 ‘제1회 김태현 콩쿨’은 피아노연주자를 대상으로 열리며 고등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경연을 진행한다. 상자에게는 상금을 수여하고, 협연 기회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첫 콩쿨은 오는 31일 오후 2시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현재 선율을 이끌고 있는 음악인 김지형씨는 “젊은 클래식 연주자를 발굴하려 애쓰셨던 김태현 선생님의 뜻을 콩쿨이라는 형태로 이어갈 수 있어서 기쁘다”며 “쉽지 않겠지만 올해를 시작으로 앞으로 꾸준히 콩쿨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피아노 전공)를 졸업하고 북텍사스주립대학교 피아노 연주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불가리아 인민문화상·흑해 페스티벌 음악공로상 등을 수상했다.

러시아 필하모니, 아나체크 현악 4중주단 등과 협연하며 피아니스트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그는 루마니아 국립 오케스트라, 체코 프라하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에서 지휘를 맡기도 했다.



고 김태현 교수

그는 광주 지역민들에게도 친숙한 음악가다. 지난 2016년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 남구민 오카리나 대합주’에서는 8647명의 시민들의 앞에서 지휘봉을 잡았다. 또 ‘아르스필하모니와 함께하는 김태현의 클래식 여행’ 등을 통해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섰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면벽’

‘벽과 창’, 팬데믹 시대 예술가의 고찰

이구용 개인전, 30일까지 예술공간 집

격리와 고립의 나날 속, 작가는 푸른 ‘벽’을 쌓고 작은 방 모퉁이에 웅크려 앉아 깊이를 알 수 없는 상념에 빠져들었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던 그는 안과 밖의 경계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독이다 벽에 새로운 ‘창’을 내고 세상을 본다. 경험 속 기억들이 새로운 형태로 다가올 때, 그는 붓을 들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한국화가 이구용 작가 개인전이 오는 30일까지 예술공간 집(광주시 동구 제봉로 158번길 11-5)에서 열린다. 이 작가는 ‘벽·창’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20여 점의 수묵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팬데믹 상황에 대한 예술가의 고찰 이랄 수 있다. 작가가 표현해낸 작품들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작가는 모든 것이 비어있는 공허함을 설파한 부처의 마음과 순수한 어린 아이의 동심을 생각하며 붓을 들었다고 말한다. 힘 주지 않고,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휘두른 붓질에서는 순수한 본성을 깨우는 자유로움

이 느껴지며 검은 색과 회색이 주조를 이루는 작품에 등장하는 ‘푸른색’은 삶의 숨구멍 같은 위안을 준다. 나무 아래 사색에 빠진 남자가 등장하는 ‘비람처럼’은 닫힌 마음에 여유를 전달하며 각자의 공간에 갇힌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면벽’은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세상을 꿈꿔야 상상하게 만든다.

작가는 “달아내기, 내려놓기, 비워가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박함이 배어있는 수묵으로 사색할 수 있는 단초를 열고자 한다”며 “현란한 이미지가 눈을 빼앗고 사유하기를 멈추게 하는 요즘 수묵과 비움의 여백미를 통해 내면을 성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작가는 현재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에 재직중으로 서울 학교재 등에서 열두 번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최근 2021 수묵비엔날레 등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허달용 작가 ‘작업적 변화 지점’ 대담

GB작가스튜디오탐방, 25일 온라인 생중계

(재)광주비엔날레는 10월 GB작가스튜디오탐방을 진행한다.

GB작가스튜디오탐방은 25일 오후 4시 광주시 북구 신안동 허달용 작가 작업실에서 무관중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온라인 생중계는 유튜브(<https://url.kr/peo9rm>) 등에서 관람 가능하다.

이날 패널로 문희영 예술공간 집 관장이 참여, 최근 작품을 중심으로 작업적 변화 지점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허 작가는 한때 민중미술 영역에서 광주 현실주의의 수목화의 줄기를 이어왔으며 예술로써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데 노력해왔다. 최근 작가의 작품을 규정지었던 데서 탈피해 또 다른 시선과 방식으로 작품관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광주 출신인 허 작가는 전남대 예술대학 졸업 후 수십 여 회 개인전을 개최하고 단체인 등에 참여했으며 광주민예총 이사장을 역임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하얀 밤’

23일 전통문화관 ‘영산재’ 공연

전통문화관 상설공연 이번 주말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 회복을 염원하는 영산재(靈山齋)를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만날 수 있다. 오는 23일 오후 3시 전통문화관 너털마당에서 (사)광주 전통불교영산회(회장 월인스님)의 영산재 공개 시연회가 펼쳐진다.

영산재(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는 49재(사람이 죽은지 49일째 되는 날에 지내는 제사)의 한 형태로 영혼이 불교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극락왕생하게 하는 의식이다. 불교 천도외례 중 대표적인 제사로 일명 ‘영산작법(靈山作法)’이라고도 한다. 2500년 전 법회 장면이 오늘날까지 영산작법으로 보존되고 전승돼 왔다. 영산재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으며 지난 2014년에는 광주 무형문화재 제23호 ‘광주영산재’로 지정됐다.

이날 시연 무대는 범음범패와 바라춤, 그리고 작법 분야의 전문 스님들이 각각 시연자로 나와 시련작법, 신중작법, 대령관악, 상주관공, 관음시식 등 영산재 주요 의식을 선보인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꽃으로 전하는 ‘사랑의 노래’

안은하 개인전, 31일까지 LH휴랑갤러리

‘꽃으로 전하는 위로.’

안은하 작가 개인전이 오는 31일까지 광주시 서구 한국도지주택공사 광주·전남 본부 LH휴랑갤러리에서 열린다.

‘사랑의 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꽃그림을 선보이고 있다. 그가 화폭에 풀어놓은 작품들은 다양한 모습이다. 푸른 화병과 나무로 엮은 바구니 위에 소담하게 담긴 꽃들은 각자의 매력을 뽐내며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알록달록 색깔의 다채로운 꽃은 생명력을 보여주는 녹색 줄기와 어우러져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지난해 ‘우리노래 작가전’을 주제로 첫번째 개인전을 열었던 안 작가는 남부위터컬러페스티벌 등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호남대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석사 학위를 받은 그는 한국 청소년상



‘사랑의 노래’

담학회 회원, 재난 심리상담과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미술 심리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켜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